

보도 일시	2022. 6. 14.(화) 12:00 2022. 6. 15.(수) 조간	배포 일시	2022. 6. 14.(화) 12:00
담당 부서 <총괄>	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 김문실 (044-202-7157)
		담당자	사무관 안성수 (044-202-7152)

외국인 근로자(E-9) 2만 6천여 명 8월까지 들어온다!

-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-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.

-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.
- 또한,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.

* 연도별 입국 인원(명) : ('19년) 51,366 → ('20년) 6,688 → ('21년) 10,501

** '22년 입국인원: (1~5월) 19,000명 → (6~8월) 26,000여명 → (9~12월) 28,000여명

□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 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 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,

-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,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(국토교통부)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다.

* 부정기편 증편: (네팔) 6.1.부터 주1회→ 주2회, (인나) 6.7. 주1회 추가, (미얀마) 7.6. 주1회 추가

- 고용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(6월)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.
-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문실 (044-202-7157)
		담당자	사무관	안성수 (044-202-7152)
<공동>	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도입부	책임자	부 장	김상규 (052-714-8561)
		담당자	차 장	엄현석 (052-714-8562)

